

『돈키호테』 비평의 몇 가지 반성적 회고와 성찰*

김 춘 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1. 탈근대주의 시대의 『돈키호테』 읽기

유럽 근대사회의 한가지 사상적 토대를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에서 찾는다 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동시대 사상을 의미있게 함축해낸 또 한가지 걸출한 문학적 표현이다. 문학은 비유적 상상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쉽게 교조적 사유의 틀을 넘어선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cogito ergo sum”고 말했다면 세르반테스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할 수 있다. sum ergo cogito”고 응수했을 것이다. 데카르트가 이성적 사유를 존재의 절대적 토대로 교조화하였다면 세르반테스는 같은 시대 인간의 인문주의적 상황에 대해 성찰하면서도 이성중심주의의 교조적 한계를 짚어 풍자의 여백을 남겨두었다. 마치 요즈음처럼 인문주의 지식과 합리주의 사

* 이 논문은 2008년 인문대학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주 제 어: 희비극, 또랄바 일화, 소설의 기원, 인문주의, 비평의 역사성
tragicomedia, propone algo y no concluye nada, origen de la novela,
Humanismo, historicidad

상의 가치가 쇠락하는 시대를 위해 확장된 『돈키호테』 읽기를 예비해두기라도 했던 것 같다.

오늘날 정보화 기술 변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이성보다 감성적 소통의 효율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활자 정보의 가치가 누리던 절대적 지위가 쇠퇴하고 대신 이미지 정보가 주요한 지적 정보 유통의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정보는 소통과정에서 논리적 성찰보다 직관적 순발력을 요구한다. 이성보다 감성적 소통의 효율성을 부각시킨다. 그렇게 독서의 여백이 줄어드는 만큼 회의하고 해석하는 사유의 공간도 축소된다. 데카르트와 도그마가 입지를 잃어가는 대신 돈키호테의 비이성이 상상의 나라를 펴고 옥일승천할 태세인 것이다.

그리하여 서사적 장르에서도 아이러니를 구조로 하는 지적 현실 재현 양식보다 플롯 진행과 반전 속도가 빨라지고 직관적 감성 소통과 판타지가 득세하는 등 서사 양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비평의 조류 또한 혁명적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비평도 문학 장르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산물이고 문화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에 대한 비평과 해석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 『돈키호테』 비평 주제와 해석적 관점들이 급속하게 진부해지고 새로운 논쟁적 주제를 찾아 읽기 방식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낭만주의 시대로부터 축적된 근대적 『돈키호테』 연구의 핵심적 주제들에 대해 비평적 가치와 적실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20세기 후반부터 전개된 혁신적 사유 양식을 바탕으로 반성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세르반테스 전기 연구에서 탁월한 족적을 남긴 카나바지오 Jean Canavaggio도 최근 저서에서 세르반테스 비평 논쟁의 혼돈 양상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돈키호테가 해방시키는 죄수들의 일화(I, 22)에서 자유주의 정신을 본 낭만주의 비평이나 이를 읽고 크게 감동했다는 카사노바 Giacomo Casanova의 예는 노역형이 고문이나 교수형 또는 감옥살이보다 한결 형편이 나았다는 당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다.¹⁾ 낭만주의 시대 자의적 이상주의 비평의 위험

을 언급하고 있지만, 동시에 독자 중심 수용주의를 주장하는 현대 비평이 범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의 한계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카나바지오 자신도 진리란 객관적 진실 규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현재를 맥락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수긍한다. 결국, 세르반테스의 본래 의도를 규명해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목표라는 난처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비평의 조류는 작가의 의도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해석의 상대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아메리코 카스트로 A. Castro는 현대적 『돈키호테』 해석의 출발점이 된 *El pensamiento de Cervantes*(1925)를 통해 처음으로 조망주의 *perspectivismo*를 내세우면서 절대적 의미 읽기를 유보해 상대적 해석 공간을 열어놓았다. 더 나아가 두란 M. Durán은 애매모호성을 『돈키호테』의 미학과 서사구조의 바탕으로 이해하였다.²⁾ 라일리 C. Riley도 궁극적 의미의 기원으로 회귀하려는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를 해석하는데 불가피하게 주관적 인식이 개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긍했다.³⁾ 보르헤스는 단편 『돈키호테 작가 빼에르메나르』(*Ficciones*, 1944)에서 ‘『돈키호테』의 모든 시대, 모든 독자, 모든 읽기는 개별적’이라고 읽기와 해석의 상대성을 극단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과거 엄격한 사실 궁구를 지향하던 실증적 비평시대가 물러가면서 언어의 탈구조적 이해와 텍스트의 불확정성이 더 주목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 진실 천착 의지가 부정되거나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 수용주의의 상대적 진리관도 결국은 보다 면밀한 진실탐구 의지에서 추동되고 있는 것이다. 실증적 사고 뿐만 아니라 해석의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진실을 궁구하려는 목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종국에는 역사적 사실에 토대를 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구심적 비평 노력과 작품을 동기

1) Canavaggio, Jean. *Don Quijote: del libro al mito*. Traducción de Mauro Armiño, Madrid, Espasa Calpe, 2006, págs. 286-287.

2) Durán, M.; *La ambigüedad en el Quijote*, Xalapa (México). Universidad Venezolana, 1960.

3) Riley, Edward. *Don Quixote*. Allen & Unwin, Londres, 1986 (Traducción española: *Introducción al Quijote*, Crítica, Barcelona, 1990).

로 상상의 경계를 확장해나가는 원심적 비평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해석의 자의성이 문제시될 수 있고 학문적 가치를 시비 삼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돈키호테』를 두고 낭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정신의 고전으로 삼고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의 규범적 사례로 삼은 것을 오독의 경우로만 치부할 것인가? 분석과 추론의 경계 너머로 어떻게 사유를 확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여기서 서구 근대의 인식론적 질서가 통째로 흔들리는 이즈음의 지적 환경을 되새겨 해석이 상충해왔던 『돈키호테』 비평의 몇 가지 논쟁적 주제들을 반성적으로 검토해볼 일이다.

2. 희극인가, 비극인가?

『돈키호테』를 해석하고 인물의 성격을 정의하는 데 가장 핵심적 주제 중 하나는 희극이나 비극이나 하는 논쟁이었다. 비평과 해석의 입장은 양분되어 희극적으로 해석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비극적으로 해석하는 쪽이 나누었다. 한 쪽이 규범과 상식을 일탈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웃음을 일궈내는 해학과 풍자의 성격을 강조했다면, 다른 쪽은 해석적 진리의 상대성을 본질로 하는 소설의 서사원리를 강조하고 세속화된 근대 시민계급의 회의주의를 내세웠다. 『돈키호테』를 희극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주로 작가의 의도를 중시하는 의도주의 입장이고 비극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로 독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수용주의 입장에서 출발한다.

『돈키호테』를 해석하는 데 철학적 진지함이 희극적 가치 위에 군림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 낭만주의 비평 사조에서 비롯되었다. 루소가 『인간 불평등기원론』에서 자연 상태에서 문명으로 이행하는 인간의 완성 능력(perfectibilité)을 꿈꾸었다면, 인간의 불완전성을 우화화한 돈키호테야말로 반어적으로 완결성을 꿈꾸는 낭만주의적 인간 전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독일 낭만주의 시인과 철학자들이 앞장서 『돈키호테』를 인간의 실존 문제를 철학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내세웠다. 셸링 F. W. Schelling

은 『예술철학』 *Philosophie der Kunst*(1803)에서 옛날 사람들이 호머를 존경했다면 현대인들은 세르반테스를 존경한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해석은 역사적 실증성에 근거한다기보다 상징적 해석에 근거하고 있었다. 과학적 설득력보다 시적 상상력에 기댄 것이다.

반면에, 거슬러 올라가 『돈키호테』 출간 초기 17세기 독자들은 주로 해학과 웃음거리로 받아들였다. 현대 비평에서도 아우얼바하 E. Auerbach는 아예 현실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돈키호테』를 서구 리얼리즘 문학 전통에서 제외시켰다. 『돈키호테』를 지배하는 것은 순전히 ‘유패한 유희’로 또는 미치광이를 조롱하는 희극이라고 본 것이다. 그것은 ‘무비판적이고 문제성 없는 유패함’이며 어떻게든 상징적 비극성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다.⁴⁾ 러셀 Peter Russell도 진지함과 웃음이 공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필딩 H. Fielding, 디킨스 C. Dickens, 스톤 L. Sterne으로 이어지는 근대 소설 문학 전통에서 『돈키호테』를 배제하였다.⁵⁾ 클로즈 A. Close 또한 세르반테스를 고전적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희극 미학의 계승자로 간주하면서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유패한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돈키호테와 산초가 바르셀로나에 입성할 때 스페인 군대와 터키군 사이의 전투로 일어난 포연 앞에서도 ‘유패한 바다, 희희낙낙하는 대지, 거기에 뇌동해 킁킁거리며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의 풍경 (“*El mar alegre, la tierra joconda, el aire claro, sólo tal vez turbio del humo de la artillería, parece que iba fundiendo y engendrando gusto súbito en todas las gentes*” (II, 61))’ 운운을 예시적 일화로 언급하고 있다.⁶⁾

같은 맥락에서, 세르반테스의 소설 이론에 관한 한 여전히 고전으로 꼽을 수 있는 라일리 E.C. Riley의 『세르반테스 소설론』 *Cervantes's Theory of the Novel* (Oxford: Clarendon, 1962)도 세르반테스의 회의주의를 소설의 희극

4) 『미메시스·서구문학에 나타난 현실모사』, 근대편, 민음사, 1987.

5) *Cervant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83.

6) *Cervantes y la mentalidad cómica de su tiempo*. Traducción de Leticia Iglesias Pedronzo y Carlos Conde Solares. Centro de Estudios Cervantinos, 2006. Págs. 399-400.

적 본성에 대한 일깨움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설과 역사를 대비시켜 서사적 미메시스에 대해 회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거의 근대적 의미의 리얼리즘과 상대주의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돈키호테』는 광대의 소극이 아니라 우아한 재치를 구별해낸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을 부활시킨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불룸 Harold Bloom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심없는 바보스러움과 미친 기사의 역설적 지혜가 엇물려 빚어내는 돈키호테와 산초의 우정이 인류 보편의 인간 정전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돈키호테』를 순전히 비극적이거나 순전히 희극적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해석의 지평을 크게 제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갈수록 돈키호테는 희극과 비극 양면의 영웅으로 주목하는 것이 마땅해보인다. 토랜스 Robert M. Torrance는 돈키호테가 ‘희극적 영웅’이라는 옥시모론 구조를 지적했다. 돈키호테가 별나게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희극적 주인공인 반면, 일관되게 자기 자신이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영웅이어야 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삶에는 평범한 범부를 닮은 일상 한편으로, 실패와 좌절의 위험을 걸고 그 일상을 넘어서려는 모험적 의지의 승리가 겹쳐있다는 것이다.⁷⁾ 그것이 인생의 역설적 운명을 그려낸 『돈키호테』를 불가피하게 희비극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대체 소설이란 무엇인가? 기원을 돌이켜봐도 소설은 희비극의 혼합을 원형으로 한다. 소설은 애당초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무정형성에서 기원했기 때문이다. 문어가 발달 과정 중에 있고 스토리텔링 능력이 제한적이었던 중세 시대에 전개된 다양한 문학 경험을 바탕으로 삼았다. 묘사와 서술, 드라마와 에세이, 주석, 독백, 웅변술 등 담화 형식이 무엇이든 뒤섞였으며 우화와 역사, 찬가와 서정시, 연대기와 콩트, 서사시 등 모든 장르가 자유자재로 어울려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무정형의 혼돈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규칙과 전범,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 명백히 구별되는 고전주의 시대 여타의 모든 문학 장르를 창조적으로 아우르는 신

7) *The Comic Hero*,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London. 1978. Pág. 11.

흥 이야기 장르의 효시였다. 운문과 산문, 시와 연극 등 모든 장르와 양식을 망라한 『돈키호테』는 그와 같은 소설의 생성과정을 응변해준다. 구비문학과 문자 문학이 교차하는 시대의 다양한 장르와 양식을 융합하는 서사적 연금술로 전대미문의 새롭고 유연한 이야기 틀로 기원을 세운 것이다. 결국, 무정형의 정형화 가운데, 그리고 장르의 혼합 가운데 희극적인 것과 비극적인 것도 뒤섞이며 스며들 수밖에 없었다. 소설은 희극과 비극의 분리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면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희비극 논쟁이 진부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일이다. 고전적 사유의 틀이 무너져가는 우리 시대에 경직된 이분법적 로고스의 틀은 여지없이 허물어진다. 희극이나 비극이나 하는 논쟁적 이론은 소설의 본질과 발생 배경을 설명하는 비평사 한 장의 꼬트머리에서 역사적 유물로 빛이 바래가고 있다. 희랍 비극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전도 현대문학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증적 가치보다 역사적 의미를 더 짙게 해가고 있다. 희비극 논쟁이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인간의 예술적 감성을 지적으로 구체화하고 설명해주는 한가지 패러다임으로 기능해왔음에 틀림없으나 탈근대 시대의 문학적 상상력과 비평 언어 속에서는 희극과 비극이 모호한 경계로 수렴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돈키호테』를 해석하는 데 희극인가 비극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비평의 중심 장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대신, 희극적인 것과 비극적인 것의 전범적 가치들이 여하히 뒤섞여 발전적 서사원리로 진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미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창조해갈 것이냐가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 진실 천착과 미래지향적 현실 탐색이 비평에 맞물려 가야 하는 것이다.

3. ‘propone algo y no concluye nada’, 근대 소설 기원의 명제인가?

그러면, 이제 역사적 세르반테스에게로, 『돈키호테』 탄생의 현실로 돌아

가보자. 17세기 초엽 세르반테스도 『돈키호테』에 관한 희극적 논쟁이 비평사의 한 장일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한계가 우리 시대 탈근대주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의 소설 이론에 비추어 봐도 희극이나 비극이나의 논쟁이 비평의 교조적 논단에 불과한 것임이 분명해진다. 소설을 쓸 무렵 이미 세르반테스는 희극의 서사적 혼종성이 소설 발생의 진정한 배경이며 희극과 비극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의 몫임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돈키호테』 1편 서문에서 모든 독자에게 각각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울한 사람은 웃고, 잘 웃는 사람은 더 웃으며, 바보는 화내지 않고, 점잖은 사람은 기발함에 감탄하며, 심각한 사람은 경멸하지 않고, 진지한 사람도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자의 지적 능력과 감성 조건에 따라 『돈키호테』는 희극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비극적으로 읽을 수도 있다고 선언하는 대목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서문은 세르반테스와 친구가 나누는 가공의 대화를 통해 형식과 권위에 얽매인 기존의 억압적 문학 관습을 타파하고 ‘오로지 현실을 현실로 재현하는’ 개혁적 창작 정신을 외치고 있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자유를 향한 실천적 의지가 새로운 소설 서사 창조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세르반테스의 사유 양식은 개방적이다. 이성과 비이성, 광기와 지혜가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 돈키호테는 사유의 경직성을 극적으로 풍자한 미학적 상상력의 결정이다. 가톨릭 교회의 엄격한 교리와 교조적 세계관 그리고 종교적 도덕율이 지배하던 폐쇄적 스페인 사회에서 사유의 개방성을 전제로 한 소설 미학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뜻밖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경직된 이념과 폐쇄적 현실 때문에 세르반테스의 자유주의 정신은 더 강렬하고 지적 회의와 열정은 시대를 뛰어넘는 문학적 상상력의 결실을 일구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돈키호테』 서문에 담긴 문학의 명제는 세르반테스의 정신적 깊이와 폭을 드러내는 사유 형식의 요체이다. ‘개방적 독서와 자유로운 지적 회의’는 서문의 선언적 명제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소설을 관통하

는 서사 원리로 작동한다. 이를테면 『돈키호테』 전편 6장의 한 대목은 세르반테스의 소설 서사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돈키호테의 서재를 수색하던 동네 신부와 이발사가 *La Galatea*의 작가 세르반테스를 두고 나누는 대화의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La Galatea*, de Miguel de Cervantes-dijo el barbero.
- Muchos años ha que es grande amigo mío ese Cervantes, y sé que es más versado en desdichas que en versos. Su libro tiene algo buena invención; *propone algo, y no concluye nada*[...] (이탤릭은 필자)(I, 6)

여기서 신부의 답변 “*propone algo, y no concluye nada*(무언가 제안하지만 결론짓지 않는다)”는 창작 명제는 세르반테스의 서사 원리를 명증하게 압축하고 있다. 이야기 미학의 구조적 원리가 교조적 진술을 배반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는 의미가 애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충되고 다중적 층위로 구성해야 하며, 결론을 유보하는 미결정의 이야기 구조야말로 소설적 미학의 원천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1부 20장에서 산초가 돈키호테와 주고받는 이야기를 예화로 설명할 수도 있다. 가죽 무두질 하는 물레방아 절구소리를 듣고 공격에 나서려는 돈키호테를 붙잡고 막아서며 산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다. 이 일화는 ‘*propone algo, y no concluye nada*’와 상통하는 소설 서사의 핵심적 성찰을 엿보게 한다. 산초는 돈키호테에게 이야기하지만 (‘무언가 제안하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결론 짓지 않는’) 이야기 구조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엑스프레마두라의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목동 로빠 루이스가 또랄바라는 아가씨를 사랑하다가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 마을을 떠나버리고 마는데 이번에는 또랄바가 마음이 변해 목동을 쫓아 나섰다. 목동이 구아디아나 강에 이르렀는데 강물이 불어나 배를 타고 건너는데 배가 너무 작아 양을 한 마리씩 태워 건널 수 밖에 없었다. 산초는 주인공이 데리고 온 300마리 양을 한 마리 또 한 마리 건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세는 걸 놓치면 이야기는 끝나게 된다고 돈키호테에게 일러둔다. 그리고 한 마리

씩 강을 건너는 양의 이야기를 거듭하다가 한 순간 갑자기 ‘지금까지 몇 마리를 건네주었느냐’고 돈키호테에게 묻는다. 돈키호테가 답을 못하자 산초는 약속대로 이야기를 종결짓는다. 돈키호테는 “건네준 양의 수를 세는 게 이야기의 핵심에서 그토록 중요해서, 그 많은 양을 세다가 하나라도 놓치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건가?”라고 반문하지만, 산초는 “그러니까, 지가 나리께 양이 몇 마리 건너갔느냐고 여쭙어봤더니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지 기억 속에서도 이야기하려던 이야기가 다 달아나버리고 정말이지 정말 재미도 있고 내용도 좋은 이야기였는데…”⁸⁾라며 얼버무리는 것이다.

돈키호테가 옳은가, 산초가 옳은가? 양을 숫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이야기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소설은 언어의 교직이지 현실 재현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점에서는 돈키호테가 옳다. 이야기는 현실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화한다는 말이다. 300마리 양을 배에 실어 건네는 과정을 일일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화하는 것이 소설의 언어요 재현의 원리다.

그러나 ‘재미도 있고 내용도 좋은’ 소설이 되려면 ‘세상 사람 누구도 생각한 적이 없는 새로운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산초다. 돈키호테도 “금방 한 그 이야기가 우화인지 소설인지는 세상사람 누구도 생각한 적이 없는 새로운 이야기일세. 내 평생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끝맺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못 들을 걸세”라며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새롭게 하는 것은 산초의 이야기처럼 돌연 낯설게 끝맺으며 결말을 유보할 때 가능해진다. 산초는 결말을 기다리는 독자 돈키호테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는 반전이야말로 소설 미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희극적 결말을 기대하는 독자에게 비극적 반전을 읽게 하고 비극적 반전을 기대하는 독자에게 희극적 읽기를 예비해두는 것이야말로 『돈키호테』의 서사 미학이었던 것이다. 그래야만 ‘새롭고’ ‘재미있는’ 소설의 본질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본래 소설

8) 『돈키호테 I, II』(민용태 역, 창작과 비평, 2007)에서 인용.

novelle/novel/novela의 어원은 ‘새로운 것’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현실과 모사의 경계 선상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나간다는 문제의식이야말로 ‘novela’의 태생적 의미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또랄바 일화에서 돈키호테와 산초의 관점 차이는 현실/소설(허구) 사이의 불가피한 간극을 짚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돈키호테가 대상 현실보다 이야기 행위 주체의 시각을 우위에 놓고 있다면 산초는 반대로 주체적 시각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될 대상 현실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 주체의 시각은 현실을 분절할 수밖에 없지만 대상 현실은 언어로 분절될 수 없는 무한 연속체다. 이야기 주체는 몇 마리 양의 이야기로 300마리 양의 이야기를 분절할 수 있지만 300마리 양이 하나씩 강을 건너는 현실은 그러한 언어의 분절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소설은 불가피하게 소설에 대한 서사를 소설 속에 내포하게 된다. 그것이 무언가를 이야기하지만(‘propone algo’) 아무것도 마무리 지을 수 없는(‘no concluye nada’) 소설 서사 구조의 배경인 것이다. ‘propone algo’는 이야기 행위의 사유 주체를 전제하는 인문주의 명제이고 ‘no concluye nada’는 대상 현실의 무한 연속성에서 연유하는 자연주의의 귀결이다. 돈키호테와 산초의 논쟁은 소설이 내포하는 인문주의 명제와 자연주의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산초의 전략이 이 간극을 이야기 중단으로 뛰어넘고 있다면 산초에 돈키호테를 대립시킨 세르반테스의 서사 전략은 현실과 허구 사이의 간극을 자기 반성적인 또는 자아 반영적(self-reflexive)인 서사로 되새김질하며 미학적 결실을 일구어내고 있는 것이다.

분명, ‘무언가 이야기하되 결론짓지 않는’ 스토리텔링의 원리는 『돈키호테』를 교직하는 수많은 단편과 장편(掌篇)들의 구성원리이자 『돈키호테』 중심 플롯을 관통하는 총체적 서사 원리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돈키호테』에 『돈키호테』가 등장하고 『돈키호테』의 인물들이 『돈키호테』에 대해 말하고 비평하기도 한다. 『돈키호테』 가운데 작가 세르반테스가 등장하는 것도 자아반영적 되새김질을 용변해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세르반테스 정신에서 시대를 풍미하고 미래로 견인하

는 역사성을 감지할 수도 있다. 아마도 세르반테스와 벨라스케스는 변화하는 역동적 시대정신을 공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돈키호테』 못지 않게 벨라스케스 D. Velázquez가 그린 『시녀들 *Las Meninas*』(1656)의 서술성도 역사적이다. 세르반테스가 자기 소설에 등장하고 소설 속에 실존하는 서사 행위를 통해 현실 재현을 강화할수록 더욱 명백해지는 것은 현실과 허구 사이의 불가피한 간극인 것처럼 벨라스케스가 제 그림 속에서 그림 그리는 자신을 재현하려 하지만 드러나는 것은 그림의 시공간적 모순인 것이다. 세르반테스도 벨라스케스도 현실을 진지하게 그려내려는 근대의 인본주의적 지성과 예능을 구현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푸코 Michel Foucault의 『말과 사물』 *Les mots et les choses*(1966)을 빌려 말하면 세르반테스와 벨라스케스의 예술은 말과 사물의 질서가 다르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는 인식론적 표현이다. 그림 속 화가 벨라스케스도 그림 그리는 행위 그 자체까지 그릴 수는 없다는 재현의 한계를 서술한다. 돈키호테처럼 기사소설을 탐독하다 소설의 허구 세계와 현실을 혼동하는 광기에 빠지는 것은 말과 말이 재현하는 현실 사이의 불가피한 괴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우화인 것이다.

여기서, 결국 『돈키호테』의 탄생이 한 시대를 웅변하는 작품이고 세르반테스가 역사의 방향을 예단한 작가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돈키호테의 광기는 근대 사회에 일깨워진 인간 이성의 명과 암을 같이 읽을 수 있게 한다. 인간은 문자를 통해 세상을 보는 이성적 능력을 얻지만 문자는 인간의 이성을 구속한다. 문자는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이성적 도구인 동시에 읽힌 세계 너머의 현실 그 자체를 볼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다. 그렇게 돈키호테와 기사소설의 관계도 인식론적으로 이중적이다. 돈키호테는 기사소설을 통해 현실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의 이성적 현실은 기사소설의 허구 속에 담혀 있다. 돈키호테가 믿는 동안 기사 소설 세계는 현실로 둔갑하지만 믿음에서 깨어나면 허구세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 재현된 세계에 대한 믿음은 재현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는 동안만 이성적일 뿐이다. 우리의 사물에 대한 인식은 이성적인 동시에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다. 돈키

호테가 정의로운 기사인 동시에 미치광이 편력기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여기서 세르반테스(1547-1616)가 벨라스케스(1599-1660)와 동시대인이 라면 못지않게 데카르트(1596-1650)와도 동시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되짚어 보게 된다. 한편으로 데카르트가 인간 이성을 존재의 근간으로 내세웠다면 다른 한편으로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이성주의에 맞대 비이성주의를 이야기로 재현한 최초의 근대 소설가는 세르반테스였다. 이성과 비이성은 별개 인간의 상반 개념이 아니라 인간 양면의 연속 개념이다. 따지고 보면, ‘cogito ergo sum’은 ‘sum ergo cogito’의 자연 질서를 수사적으로 전도시킨 불합리한 합리주의 명제요 교조적 명제였다. 합리주의는 언어가 곧바로 지시하는 대상세계와 동등하게 될 수 없다는 자기지시적 한계를 잠정적으로 외면하고 언어를 절대적 인식의 틀로 교조화한 이념이다. 세르반테스의 명제 “propono algo, y no concluye nada”는 합리주의에 은폐된 교조적 본질을 풍자하고 언어의 자기지시적 한계를 소설 미학의 근간으로 삼았다. 데카르트 없이 서양 근대 인문주의를 말할 수 없듯이 세르반테스를 빼놓고 인문주의를 온전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4. 『돈키호테』 비평의 이데올로기

그래서, 세르반테스가 근대 인문주의 문학의 역사적 패러다임 작가이고 『돈키호테』는 명백한 서구 근대 소설의 기원인가? 분명,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중세 기사 사회의 로망스 소설의 뒤를 잇는 근대 서구 사회의 서사 전통 확립 과정에서 『돈키호테』의 출현은 상징적 사건이다. 근대의 특징이 사유하는 주체의 등장이라면 ‘propono algo’의 이야기 주체도 그러한 근대적 사유 주체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돈키호테』는 이성에 대한 회의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세르반테스는 지적 경험의 불확실성을 소설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삼았다. 지적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찰하고 경험한

일상에 미적 상상력을 불어넣었다. 그것이 중세와 다른 근대적 소설 미학의 지평을 가늠하게 해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근대 소설 형성 과정에서 『돈키호테』의 중요성을 꼽더라도 소설의 기원을 한 두 작가의 창작 경험에 한정할 일은 아니다. 소설은 근대 이전의 전근대(premodernidad)를 개척한 스페인 식민제국 시대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을 발생 배경으로 하고 있다. 15세기 말 스페인 가톨릭 군주는 카스티야와 아라곤을 통합하고 이슬람과 유대인 세력을 축출해 반도를 통일하고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한편, 콜럼버스를 지원해 유럽의 역사 지평을 아메리카로 확장시켰다. 이 무렵 팽창하던 스페인 제국의 전사들이 남긴 정복 기행과 역사기록물들은 원형적 소설 서사의 실험장이 되었다. 무엇보다 인쇄와 출판 기술이 서사 양식 발전의 견고한 토양이 되었다. 그리하여 『돈키호테』에 앞서 베스트셀러도 등장했다. 16세기 스페인 최대의 베스트셀러는 『아마디스 데 가올라』와 『라 셀레스티나』였다. 이들 작품은 세기를 관통하며 스페인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금지된 연애와 마녀의 중매 수작이 중심 플롯으로 엮어진 『라 셀레스티나』는 수많은 유사 모방작품들을 쏟아내며 하나의 장르를 형성했으나 근대 사회의 마녀 쇠퇴와 함께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그에 비해 스페인 판 기사소설 『아마디스 데 가올라』는 근 한 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읽혀지며 소설 문학사의 전기를 마련했다. 중세 봉건시대의 문화적 유산인 기사소설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가 가능해졌던 것이다. 『돈키호테』는 그 결실이다.

요컨대 전근대 스페인이 경험한 이야기 서사의 양적 질적 증가가 16세기 소설 실험과정을 거치며 『돈키호테』와 같은 근대 소설 형식을 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스페인 문학사에서 『돈키호테』를 근대소설의 효시로 꼽는 것은 메넨데스 펠라요 이래 확고부동한 전통이다. 우나무노와 오르테가 이 가세트 등 이른바 98세대 문학 논쟁은 『돈키호테』의 근대성을 앞세워 민족의 성전으로 승화시켰다. 뒤를 이어 독일 낭만주의 전통을 따라 『돈키호테』를 최초의 근대 소설로 정착시킨 것은 카스트로였다. 그 외에도 『돈키호테』의 소설 전범으로서의 가치는 누누이 되뇌어졌다. 트릴링 Lionel

Trilling은 “모든 허구 산문은 『돈키호테』의 변주”라고 했고, 질만 Stephen Gilman은 허구 소설의 대양에서 ‘추적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탐구할 수 없는’ 세르반테스의 족적을 콜럼버스의 신대륙 항해에 비유했다.⁹⁾ 루카치의 소설 이론은 독일 성장소설을 가장 완성된 소설 양식으로 꼽았지만 근대 사회 들어 총체성의 결핍을 아이러니 형식으로 보상한 최초의 소설로는 『돈키호테』를 꼽는다. 서구 근대 소설이 정신적 고향 희랍 서사시로부터의 소외를 표현하고 세계와 인간의 총체성에 대한 상실감을 보상해 표현한 장르라면 비이성적 편력 기사 돈키호테가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 나선 소설 『돈키호테』의 아이러니야말로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¹⁰⁾

그러나 『돈키호테』를 서구 근대 소설의 기원으로 꼽는 데는 논란이 만만치 않다. 기원 여부의 진실 문제는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문학비평의 이념적 지형에 따라 주관적으로 재단되어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이 소설의 기원인가 하는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이를테면 아이러니를 근간으로 한 『돈키호테』를 근대소설의 효시로 보려는 관념주의 비평 이론에 대해 와트 I. Watt는 입장을 달리한다. 와트의 견해에 의하면 소설은 근대 시민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산물이다.¹¹⁾ 개인이 사회 경제적 주체로 등장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결정짓고 역사를 만들어가려는 개인주의 정신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다. 시민계급의 교양과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매체이자 문화적 소비물이며,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시민계급의 지적 소비를 위해 생산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스코트 W. Scott에서 데포우 Defoe

9) *Novel according to Cervantes*, university of Berkeley Press, 1989, p. xv.

10) 드만 Paul De Man은 총체성의 상실을 보상하는 힘으로 아이러니 개념을 설정한 것은 쉴레겔 Schlegel, 헤겔 Hegel, 솔게르 Solger 등 독일 관념주의와 낭만주의에서 직접 빌려온 것이며 루카치의 독창성은 아이러니를 구조적 범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Georg Luckács’s Theory of the Novel” *MLN*, Vol. 81, No. 5, General Issue (Dec., 1966), p. 534.)

11) I. Watt, *The rise of the Novel: Studies in Defoe, Richardson, and Field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1957.

에 이르는 영국 소설의 형성 배경을 사회 경제적 변화를 주도한 개인 중심적 경험주의 바탕에서 찾은 것이다.¹²⁾

이렇게 소설 기원에 대한 이론은 대립된다. 그러나 논쟁의 대립 양상은 이념적이다. 비평과 해석의 진실 논쟁은 불가피하게 사회 사상과 이념 배경에 뿌리내려 있는 것이다. 스페인과 대륙계 비평이 소설의 기원으로 『돈키호테』에 주목했다면 영미 소설 비평은 『로빈슨 크루소』를 근대소설의 기원으로 삼았다. 루카치가 보여주듯 헤겔의 낭만주의 철학과 독일 관념주의 철학 전통을 이어받은 대륙의 소설 비평이 주로 소설 형식을 문제 삼았다면 경험주의 철학 전통의 연장선상에 서있는 영미의 비평 이론은 소설의 실증적 가치에 더 비중을 둔다. 한 쪽의 비평정신에 이상주의 정신과 낭만주의 향수가 자리잡고 있다면 다른 한 쪽은 경험주의 철학과 리얼리즘 정신에 뿌리가 닿아 있다.

와트가 소설의 특징으로 관념주의와 반대되는 리얼리즘을 내세웠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영미학자들은 로마의 소설이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소설도 소설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¹³⁾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이 혼재하던 스페인 소설에 관해서도 영미 이론의 영향으로 소설과 로망스 구별 여부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엘 사파르 Ruth El Saffar는 세르반테스의 모범소설 집필 연대순서를 연구한 결과 로망스에서 소설로 발전해간 것이 아니라 소설에서 로망스로 역행하는 과정을 보였다고 결론 짓고, 세르반테스를 근본적으로 로망스 작가로 규정하였다.¹⁴⁾ 그것은 소베하노 Gonzalo Sobejano처럼¹⁵⁾ 세르반테스를 최초의 소설가로 인식하려는 스페인 이론가들과는 궤를 달리

12) Mckeon, John., *The Origins of the English Novel 1600-1740*,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Maryland, and London, 1987.

13) Doody, Margaret Anne, *The true story of the novel*. Rutgers Univ. Press, New Brunswick, Nueva Jersey. 1996. Pág. 17.

14) *Novel to Romance: A Study of Cervantes's Novelas Ejemplares*.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15) "Sobre tipología y ordenación de las Novelas Ejemplares", *Hispanic Review*. Núm.1, 1978. Págs. 65-75.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돈키호테』 비평 논쟁은 이론 논쟁인 동시에 이념 논쟁일 수밖에 없다. 소설 기원에 관한 논쟁과 다를 바 없이 『돈키호테』가 비극인가 희극인가에 관한 비평 논쟁도 이론가들의 이념 배경과 불가피하게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영국의 세르반테스 비평가들이 『돈키호테』를 궁극적으로 희극 작품으로 보려는 것은 『로빈슨 크루소』에서 소설의 기원을 찾는 리얼리즘 비평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¹⁶⁾ 『돈키호테』가 희극이라면 리얼리즘의 비극적 진지함과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희극이나 비극이나의 논쟁은 근대소설의 기원에 관한 논쟁과 동일한 이데올로기 편향을 배경으로 전개된 것이다. 『돈키호테』의 희극적 주제를 부각시키는 비평이 주로 영미 비평계에서 주류를 이루어왔던 반면 『돈키호테』에서 진지하게 숭고미를 찾아 읽으려 시도한 것은 독일 낭만주의였다.

여기에 스페인 문학 비평의 자민족 이데올로기 색채는 한결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세르반테스를 최초의 근대 소설가로 추앙하고 『돈키호테』를 소설 중의 소설로 신화화하는 데 스페인 문학 비평계의 입장은 더없이 열광적이었던 것이다. 영국 문학에서 『로빈슨 크루소』를 소설의 기원으로 보는 입장에 견주면 문학 이론과 철학의 차이도 있겠지만 자기 민족의 자긍심을 드러내려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편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돈키호테』는 스페인 문학뿐만 아니라 사상과 문화의 한 중심에 놓여 있다. 스페인어 해가 지지 않는 식민제국에서 유럽 남단의 변방국가로 전락시킨 1898년 미서전쟁 직후 일어난 98세대 지식인 운동에서 돈키호테의 부활을 스페인 부흥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은 세르반테스의 위대한 소설에 대한 민족적 경배가 얼마만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나무노 Miguel de Unamuno가 돈키호테를 ‘비이성의 이성’으로 내세워 서구 합리주의의 모순을 비판하고

16) 물론 논의의 극단적 단순화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라일리 E. C. Riley 같은 영국의 세르반테스 비평가는 『돈키호테』의 희극적 성격을 인정하는 동시에 서사적 산문을 넘어서는 소설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Cervantes's Theory of the Novel*(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2)). 그러나 경향과 추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적 단순화를 무릅써야 한다.

스페인의 영혼을 일깨울 상징으로 추켜세웠다면, 오르테가 이 가세트 J. Ortega y gasset는 『돈키호테』에서 이성의 위기를 극복할 ‘실존적/생명적 이성 la razón vital’을 찾고 철학과 도덕, 과학과 정치의 모든 것을 문학 속에 담아낸 절정의 정신적 결정으로 고양시켰던 것이다.¹⁷⁾

5. 『돈키호테』와 소설 이론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보면, 『돈키호테』를 해석하는 비평 시각은 옳으나 틀리냐의 진실 여부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사유와 인식의 향배로 가능되는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사실로 귀착되어간다. 『돈키호테』를 희극과 비극의 절대적 잣대로 재단하거나 유일한 소설의 효시로 자리매김하고 소설 중의 소설로 추앙하는 절대적 비평 시각에는 진실의 가치보다 이념과 역사의 의미가 갈수록 무게를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즈음에서 스페인 민족 문학사 단위의 틀을 넘어 서구 근대사 전체의 통일적 안목에서 『돈키호테』를 바라 볼 필요가 있겠다. 서구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돈키호테』의 역사적 의미는 각별하다. 근대 국가 성립과 더불어 진행된 문어 발달의 문화적 결실이기 때문이다. 1492년 로망스 언어 중 최초로 『스페인어 문법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이 인문주의자 네브리하 A. Nebrija에 의해 출간되었다. 인쇄술 발전을 배경으로 인문주의가 성장하고 지적 소통이 크게 확대될 무렵이었다. 언어 소통 구조가 발전하는 한편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중세 교회 권력을 약화시키고 세속 왕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가 등장했다. 네브리하는 『스페인어 문법』 서문에서 장차 스페인 제국이 새로운 영토로 팽창하고 미지의 세계를 통치하는 데 통일 언어가 필요불가결한 소통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었다.¹⁸⁾ 식민 제국의 팽창과 근대 스페인어 문법

17) *Obras completas*, I, p. 163.

18) 16세기 스페인 제국의 탄생은 네브리하의 인문주의 정신, 이사벨의 팽창주의 그리고

정착 사이의 견고한 역사적 인과성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소설은 그 식민 제국의 문화적 결실이었다. 문어 규범의 정착을 알리는 문법서의 등장으로 현실과 허구 사이 상상력의 유희에 바탕을 둔 소설 미디어가 준비될 수 있었다. 소설은 근대 서구 언어 발달이 추동한 진실 추구의 지적 욕구와 동시에 언어의 현실 인식과 재현의 한계를 상상력으로 극복하려는 감성적 추동이 빚어낸 정신 활동과 문화 소비의 결정체였다. 그렇게 『돈키호테』(1605)가 등장한 것은 『스페인어 문법』이 탄생한 지 근 한 세기가 지나서였다. 무적함대가 패퇴하고 펠리빠 2세가 타계해 스페인이 쇠락기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제국의 이상과 팽창의 이념에 들떠 자긍심과 낙관주의에 도취되어 있던 네브리하 시대가 아니라 전사의 기백이 쇠잔하고 제국의 위용이 위축되는 반성의 계절에 맞은 문화적 결실이었다. 『모범소설』 서문에서 스페인어 castellano로 소설을 쓴 최초의 소설가임을 내세우던 세르반테스의 자부심은 이사벨의 정치적 야심이나 네브리하의 친척적 자긍심과 달리 퇴락해가는 제국의 과거를 향한 향수 어린 되새김질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스페인 식민제국 이후에도 소설은 한결 강력한 민족 국가 발전과 시민계급 성장의 토대이자 서세동점하는 서구 제국주의 역사의 문화적 수레바퀴로 성장해갔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제임슨 Frederic Jameson의 지적대로 리얼리즘은 초기 단계의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문화적 재현 양식’이다.¹⁹⁾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근대 민족 국가 발전과 제국주의 팽창이 발생 배경이다. 사이드 E. Said는 『오리엔탈리즘』(1978)에서 영국 근대 소설의 성장 배경을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발흥에서 찾았다. 소설이 영국 프랑스 등

콜럼버스의 코스모로지 혁명이 결합된 사회변동 과정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스페인어문법』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처음 도달하는 1492년에 출간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미 1487년 네브리하는 살라만카대학을 방문한 이사벨 여왕에게 미출간 『스페인어문법』에 관해 설명하며 새로운 정복하고 미개한 토착민을 개종시킬 제국 팽창의 중차대한 토대임을 강조한 바 있다(Manuel Fernández Álvarez, *La gran aventura de Cristóbal Colón*, Espasa Calpe, Madrid, 2008, p. 115.).

19)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NC, 1991) 참조.

열강의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또 한번 정치적 진화단계를 거치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18-19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소설 발전은 16-17세기 스페인 소설 장르 형성 과정보다 한결 복잡하고 정교해진 사회 배경과 문화 조건을 반영한다. 신장된 시민계급의 문화 소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팽창하는 국가 권력의 이념 선전과 정치적 소통 수단으로 소설의 역사적 의미가 더욱 확고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빈슨크루소』는 『돈키호테』와 다른 소설 역사의 이정을 보여준다. 서구 근대 사회의 정치적 팽창의 역사로 보나 소설 장르의 문학사적 진화 과정으로 보나 영국 제국주의 성장기에 등장한 『로빈슨 크루소』의 역사적 이정은 스페인 제국이 쇠퇴를 시작하던 세르반테스 시대보다 제국 팽창의 문턱에 서 있던 네브리하 시대에 더 근사해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프랑스 경제사가 빌라르 Pierre Villar가 서구 역사의 결정적 전환기라는 흡사한 상황에서 탄생한 두 인물로 돈키호테와 채플린의 유사성에 주목한 것은 흥미롭다.²⁰⁾ 쇠락하는 스페인 식민 제국에서 잉태한 『돈키호테』에 상응하는 예술적 인물로 대영제국의 쇠락과 반성기의 문화적 결실인 채플린 Charlie Chaplin을 견준 것이다. 영국의 스페인사가 존 엘리엇 John H. Elliott도 영광의 세기 이후 20세기 들어 세계대전 중 쇠퇴를 경험하던 영국의 상황 정서는 레판토 해전 승리 후 쇠락을 시작한 스페인 16세기 마지막 세대의 시대 정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²¹⁾ 영화기술의 보편화라는 기술 혁명의 물적 토대를 웅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쇄문화 시대를 상징하는 『돈키호테』에 견줄 문화사적 이정표로 *Modern Times*를 꼽는 것이 그럴듯해 보인다.

오늘날 채플린의 무성영화로 시작된 영상 미디어가 급속한 기술 혁신으로 문화 지도를 바꾸어가고 있다. 그사이에 소설은, 정형화된 모든 문학 장르들 가운데 무정형의 통합 양식으로 탄생하고 군림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

20) *Le temps du Quichotte*. Europe (gener-febrer de 1956), pág. 16. Versión castellana: *El tiempo del Quijote*, en *El Quijote. El escritor y la crítica*, George Haley. Ediciones Taurus, Madrid, 1984.

21) *Spain and its World: 1500-17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págs. 9, 264.

제 다양한 문화 소비 장르들 중 하나로 궁색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서구 근대사회에서 시민 계급의 문화적 소통 수단이었던 소설이 역사적 장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소설 이론과 비평 또한 역사적일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돈키호테』에서 희극이나 리얼리즘이나 하는 논쟁이 나뉘고 근대 소설의 기원 여부가 엇갈려온 비평 논쟁의 역사적 배경은 19세기 서구 민족주의 시대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족 중심의 정치공동체가 보편적 질서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마다 민족 전통을 고양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절실한 과제였다. 게다가 출판매체가 정보 유통의 근간이 된 민족주의 시대에 민족 문학사를 정립해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의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은 민족 이념을 드높이는 중심 과제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돈키호테』를 보는 독일 낭만주의 시각에서나 영국 리얼리즘 시각에서나 또는 스페인 ‘재건주의 Regeneracionismo’ 시각에서나 제각기 민족의 이념과 가치를 고양시키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꼬리가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돈키호테』의 미래를 향해 생각해볼 일이다. 『돈키호테』의 지속적 읽기를 위해 우리 시대 비평적 논의는 한결 더 새롭고 유연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고전의 해석은 끊임없이 현재화 되어야 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화와 인식의 틀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돈키호테』를 읽는 것은 과거의 고고학적 재현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고 오늘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을 잉태한 서구 모더니티의 역사적 역동성을 여하히 반영하고 또 어떤 서사의 미래를 예고하는지 영상 미디어가 소설을 압도해가는 포스트인문주의 시대에 미래지향적 『돈키호테』 읽기를 통해 소설의 역사성을 되새겨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민족 단위 공동체를 넘어 하나의 지구촌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문화 융합과 혼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민족 국가를 탄생시킨 서구 중심의 ‘근대’라는 역사적 패러다임도 쇠퇴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말부터 근대 서구 문화의 중추적 패러다임이 흔들리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다원적

인 미국 문화가 탈근대주의를 주장하는 가운데 세계의 중심부와 주변부 문화는 뒤섞이고 뒤바뀔 태세다. 서구 중심의 문화 인식 지형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 동안 서구 근대 소설의 역사적 궤적에 맞춰져 왔던 소설 이론도 지역과 문화의 다양한 토양에 따라 다르게 식별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구되어야 할 때를 맞은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 소설사의 교과서가 된 노신의 『중국소설사략』조차도 서구 근대의 사유에 바탕을 둔 소설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던가.²²⁾ 중국 소설과 서사전통의 역사를 서구 소설사의 역사적 관점으로 재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을 규명했다기보다 오히려 노신 당대 중국의 열등한 문화 역량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음 직하다. 근대 서구 소설의 틀로 세계의 모든 소설을 재단하려는 것은 마치 희랍 비극의 틀 안에서 모든 시대의 비극을 이해하려 했던 문예부흥기 이래의 협소했던 비극 이론 지평을 상기시킨다. 마찬가지로 이제 소설의 이론과 역사에 관해서도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다원적 안목의 고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돈키호테』에서 희극과 비극의 경직된 틀을 넘어 희비극의 불가피한 혼합을 말하는 것도 가치의 다양성과 문화의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삼은 것이다. 세르반테스의 회의주의 미학 명제 ‘propono algo y no concluyo nada’를 인문주의 소설 서사의 근간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진/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서구 모더니티의 사유 전통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와 다르지 않다. 『돈키호테』와 『로빈슨 크루소』 그리고 『모던 타임즈』를 서구 근대 사회의 다원적 질서를 관통하는 문화적 계보로 조망하는 것 또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야 할 우리 시대의 문화 현실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이제 ‘근대적 의미의 소설이란 무엇인가’, 또는 ‘근대 소설의 기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동서양의 소설과 서사의 진화를 아우르며 바야흐로 새로운 차원의 비판적 성찰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적 다양성을 담아낸 더 보편적인 전망의 근대 소설과 서사 이론으로 나아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근대의 패러다임을 넘어 근대를 회고할 수 있는 확장된 지적 지평에서 『돈키호테』 비평은 한결

22) 『중국소설사』(서경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참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유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돈키호테』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 삶에 보다 더 유효하고 정치한 현재적 진실로 접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uerbach, E.(1978), 『미메시스 · 서구문학에 나타난 현실모사』, 근대편, 민음사.
- Bloom, H.(1994), *The Western Canon*, Riverhead Books, New York.
- Castro, A.(1925), *El pensamiento de Cervantes*, Madrid: Hernando, (Reimpresión, Noguera, 1980).
- Canavaggio, Jean. *Don Quijote: del libro al mito*. Traducción de Mauro Armíño, Madrid, Espasa Calpe, 2006. (Título original *Don Quichotte, du livre au mythe: quatre siècles d'errance*, París, éditions Fayard, 2005.)
- Close, A.(2006), *Cervantes y la mentalidad cómica de su tiempo*. Traducción de Leticia Iglesias Pedronzo y Carlos Conde Solares. Centro de Estudios Cervantinos.
- De Man, P.(1966), “Georg Luckács’s Theory of the Novel”, *MLN*, Vol. 81, No. 5, General Issue (Dec., 1966).
- Doody, Margaret Anne(1996), *The true story of the novel*. Rutgers Univ. Press, New Brunswick, Nueva Jersey.
- Durán, M.(1960), *La ambigüedad en el Quijote*, Xalapa(México). Universidad Venezolana.
- El Saffar, Ruth Snodgrass, *Novel to Romance: A Study of Cervantes’s Novelas Ejemplares*(1978),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lliott, John H.(1989), *Spain and its World: 1500-17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ernández Alvarez, Manuel(2008), *La gran aventura de Cristóbal Colón*, Espasa Calpe, Madrid.
- Gilman, S.(1989), *Novel according to Cervantes*, University of Berkeley Press.
- Mckee, John(1987), *The Origins of the English Novel 1600-1740*,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Maryland, and London.
- Riley, Edward(1962), *Cervantes’s Theory of the Novel*, Oxford.
- Russell, P.(1983), *Cervan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obejano, Gonzalo(1978), “Sobre tipología y ordenación de las Novelas Ejemplares”, *Hispanic Review*. Núm. 1.

- Torrance, Robert M.(1978), *The Comic Hero*,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London.
- Villar, Pierre(1956), *Le temps du Quichotte. Europe(gener-febrier de 1956)*, pág. 16.(“El tiempo del Quijote”, en *El Quijote. El escritor y la crítica*, George Haley. Ediciones Taurus, Madrid, 1984.)
- Watt, I., *The rise of the Novel: Studies in Defoe, Richardson, and Fielding*(1957),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원고 접수일: 2010년 9월 1일

심사 완료일: 2010년 11월 14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1월 15일

Reflexiones de la Crítica del *Quijote* - para una nueva perspectiva intelectual -

Kim, Choon-Jin

Este trabajo trata de reflexionar sobre la crítica del *Quijote* para repasar la definición de la novela. Todos los esfuerzos por definir el género ‘novela’ fallaron porque su característica consistía principalmente en un montaje de heterogeneidad; a pesar de ello, otra cara de esta heterogeneidad la fuerza renovadora de lo antiguo y establecido. Lo prueba significativamente el mismo origen etimológico de la novela, que se deriva de ‘lo nuevo.’

En el momento de su nacimiento de la novela, a manos de Cervantes, se manifestaba sus principales características, entre otras, el entretenimiento de contar y leer historias y la técnica de narrarlas de manera imprevista con un final revertida e irónica. Las cuales quedan resumidas en los cuentos de dos episodios, el de ‘propone algo y no concluye nada’, y el del pastor Torralba.

La crítica del *Quijote* diverge a lo largo del tiempo. La tradición idealista alemán, romántica y Hegeliana, intentaba definir la novela remarcando la forma irónica de contrar historias; el empiricismo anglosajón consideraba más la ideología individualista, es decir, la de los consumidores de la novela, a la hora de definir este género. “Aquella tiende a la visión trágica del

Humanismo cervantino, y éste se acerca más a la función cómica del divertimento del *Quijote*. Unos y otros divergen en definir el origen de la novela moderna europea.

Son esfuerzos teóricos, que han valido para ampliar las perspectivas de entender el género ‘novela’, pero que se han distanciado bastante del aspecto original de la novela en su momento de nacer. Es decir, la divergencia por una parte y el distanciamiento por otra es el destino inevitable de la crítica del *Quijote*. Para buscar equilibrio entre la divergencia histórica y la esencia pristina del género hay que indagar más en el espíritu renovador que Cervantes compartiría con nosotros en esta era revolucionaria posthumanista.

